

2013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심

메시지 8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심

성경: 고후 4:4, 6-7, 3:18, 마 16:28, 17:2, 계 22:4 상, 5 하, 21:23

- I.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고후 4:4.
- A.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히 1:3, 고후 4:6.
 - B.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들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신다—1:3, 엡 1:3, 6, 12, 14.
- II.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고후 4:6.
- A.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추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빛비춤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후 4:4, 6.
 - B.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인격이며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후 4:4, 6, 마 17:2.
 - C.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행 7:2, 히 1:3.
 - D.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 비추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비추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선포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안으로 비추시고 그 후에 그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어 나갈 것이다—요 1:18, 마 5:16, 빌 2:15.
- III.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고후 4:7.
- A.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남을 통해서 믿는 이들은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재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다—고후 4:6-7.
 - 1.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분배하심인 하나님의 비추심은 보배,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온다—고후 4:4, 6-7, 골 2:9, 3:4, 11, 고전 15:45 하.

2. 이 귀한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빌 4:13, 고후 13:5, 4:7.
- B. 이 귀한 보배는 질그릇들을 귀한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들었다.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 능력의 탁월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고후 3:6, 1:9, 4:7.
- IV.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고후 3:18.**
- A.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B.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우리가 그분과 하나되고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분의 영광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어떠한 것과 똑같이 만드신다—눅 24:46, 히 2:9, 고후 3:18, 롬 8:29.
- C.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다—고후 3:18.
- V.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마 16:28, 17:2.**
- A. 주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인 이 변형은 그분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과 똑같았다—마 17:2.
- 16 장 28 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17 장 2 절의 산 위에서 그분의 변형으로 이루어졌다.
 - 주 예수님의 변형, 곧 비추심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오심이였다. 그분의 변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오는 것이 있다—마 16:28—17:13, 눅 9:27-36.
- B.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비추심이다. 그분의 비추심 아래 있는 것이 그분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계 22:4-5.
- C. 그리스도께서는 씨로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려지셨다. 이 씨는 영광 안에서 꽃이 피고 나타날 때까지 자라고 발전할 것이다—막 4:26-29, 골 3:3-4.
- D.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변형되실 때 그 변형은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이 된다—골 1:12-13.
- VI.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계 22:4 상, 5 하.**
- A.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들이 누린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계 22:4 상.
- B. 어린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추심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계 22:5 하, 21:23.